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회복력과 장소성 : 지역경쟁력의 대안 모색*

이 원 호**

Regional Resilience and Placeness for Sustainable Growth : Searching for an Alternative to Regional Competitiveness*

Wonho Lee**

요약 : 본 연구는 그동안 지역정책 전략을 지배해 온 지역경쟁력 개념이 저성장과 위기 상존 기조가 지배하는 오늘날 지역정책 전략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보다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전략을 위한 새로운 지역회복력 개념의 의미와 적용방안을 사례연구와 함께 고찰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 논문은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직면한 지역변동을 이해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지역회복력이 유용한 개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더 나아가 지역회복력의 측정과 요인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회복력 관련 연구를 위한 기본방향도 설정하였다. 또한 시론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권과 동남권의 지역회복력 추이와 그 과정에서 장소와 스케일에 따라 그 패턴과 경험이 차별적이며, 지역 내 경로의존적으로 형성된 산업구조와 지역의 경쟁력 효과가 지역회복력 패턴을 이해하는데 유의미함을 파악하였다.

주요어 : 지역회복력, 장소성, 지속가능한 성장, 대안적 지역발전, 지역경쟁력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ceptualization and application of new concept of regional resilience with case study in Korea in order to promote more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while problematizing dominant regional competitiveness concept in the current regional development circle under the condition of stagnant growth and ever-existing crisis in these days. Through literature review, this paper found out that regional resilience is a useful concept both to understand dramatic regional changes and to promote new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Furthermore, the study formulated basic research topics and issues for regional resilience through reviewing existing research outcomes on the measurement and factors of regional resilience. Through case study of two macro city-regions in Korea, this study also found out that regional resilience patterns and processes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place and its scale and that both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formed in a path-dependent way and regional competitive characteristics are all significant to understand the regional resilience patterns and processes.

Key Words : regional resilience, placeness, sustainable growth, alternative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competitiveness.

1. 서론

최근 글로벌 경제의 변동에 맞물려 우리나라의 경제도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돌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대외적인 위기가 발생하여 충격을 받을 때마다 하락하였고 이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수, 2016). 실제 1970년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0%대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오늘

날은 3.5%에 머무르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5).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지역발전 이슈와 관련하여 현재 심각하게 진행 중인 산업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지역경제의 재편과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까지 지역발전전략은 ‘지역경쟁력’에 초점을 둔 지배적인 담론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정책은 지역 내 생산성 제고, 새로운 자본과 노동의 유치 등을

* 이 논문은 2014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wonholee@sungshin.ac.kr)

통한 경제적 이점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Dawley, *et al.*, 2010). 그러나 이러한 지역경쟁력 개념에 내재된 많은 요인들은 현 시기 급격한 글로벌 경제의 변동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오히려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다(Hudson, 2010). 특히 글로벌 경제변동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보다 포용적이며 환경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소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에는 기존의 지역경쟁력 담론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지역발전 담론을 지배해 온 지역경쟁력 개념에 대응하여 특정 지역 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회복력(regional resilience)에 대한 관심이 정책 및 연구 영역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Bristow, 2010; Christopherson *et al.*, 2010; Hassink, 2010; Pendall *et al.*, 2010; 하수정 외, 2014; Martin and Sunley, 2015). 원래 회복력은 환경연구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불리한 환경조건에서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지역회복력은 지역적응과 함께 주목받고 있고 진화론적 경제지리학과 연관되어 있다. 지역회복력은 단지 경제적인 성공이 아니라 경제적 성공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의 성공은 현재와 과거의 경제성장, 고용률, 생활수준, 삶의 질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지만, 지역회복력에서 문제는 해당 지역의 성공이 미래에도 유지될 것인지 또는 그 지역이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회복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Simmie and Martin, 2010).

지역발전정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지역회복력 개념의 등장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역발전정책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정책을 구성할 지역회복력은 일견 지속가능성, 국지화와 다양화 등에 대한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역을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진화적이며 맥락적인 발전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Pike *et al.*, 2010). 이제 이러한 지역회복력의 특성을 정책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회복력의 구성요

소, 결정요인, 측정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정책적 언어로 전환하는 학술적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경쟁력 개념과는 차별화된 지역회복력 개념의 지역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회복력에 초점을 둔 지역발전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역회복력의 개념 정립을 위해 관련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지역회복력 개념의 적용 틀을 마련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시적 도시지역(city region)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동남권(부산, 경남, 울산)을 대상으로 지역회복력의 관점에서 지난 1990년 이후 지역경제의 변동과정을 비교 분석한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정책이 '선택과 집중'의 기조 속에서 추진되면서, 개별지역의 전문화를 강조함에 따라 사실상 지역경제의 다양성 확보와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사례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론적 검토와 사례 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역회복력에 기초한 지역발전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기존 문헌의 검토를 통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지역회복력 논쟁 속에서 핵심적인 이슈인 지역회복력의 개념, 측정 및 결정요인에 대한 논점과 시사점을 정리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도시지역이지만, 최근 분명히 다른 발전경로를 경험하고 있는 수도권과 동남권을 사례로 경제위기 이후 지역회복력 패턴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변이할당분석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수준에서 지역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 및 지역산업 경쟁력의 영향력을 평가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지역회복력의 구성요소와 적용방안

1) 지역회복력의 개념 논의

오늘날처럼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위협을 마주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고 위기로부터 탈출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필요한 적은 일찍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 회복력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다. 학문세계 각 부문에서 사용되어 온 회복력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진다(Martin and Sunley, 2015). 우선 가장 쉽게 개념화된 의미는 충격이나 위기 이후에 기존의 경로 또는 균형 상태로 시스템이 반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일반적인 관심의 초점은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오는지 등 시스템 자체의 속도 또는 효율성에 두어진다. 즉 시스템이 기존 평형상태에서 새로운 평형상태로 얼마나 빨리 옮겨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그 토대에는 생태학자 Holling(1973)이 명명한 ‘공학적 회복력(engineering resilience)’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다음으로 논의되어 온 회복력의 개념은 충격 이후 시스템의 구조, 기능 및 정체성의 변화가 전혀 없이 충격 그 자체를 흡수해 버리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 Holling(1973)의 ‘생태적 회복력’ 개념에 기초한 것인데, 생태계에서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 측면에서 외부 충격에 의해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맥락 속에서 논의할 때 이러한 회복력의 의미는 비현실적이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적 변화 능력으로 보다 개념이 확장되면서 개념적 유연성이 확보된 점은 새로운 발전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끝으로 회복력은 충격과 위기에 대해 시스템이 적절히 대응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적응력을 의미한다. 외부 충격과 위기에 대응하고 구조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포함하여 긍정적으로 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화적 회복력’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적응력으로서 회복력의 개념은 사실 시스템 내 구조와 기능의 안정성이라는 개념에 기초해서 논의되었기 때문에(Martin and Sunley, 2015; Pendall et al., 2010), 위에서 논의한 두 가지 의미의 회복력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면서, 지역경제 측면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개념적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적응력으로서 회복력은 지역경제의 구조와 기능의 안정성에 의해 외부 충격이나 위기를 흡수하거나 극복함으로써 경제성장이나 고용수준의 회복 등 중요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Pike et al., 2010). 여기에서 관심의 초점은 바로 외부 충격 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 내 구조적 및 기능적 적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회복력의 다양한 개념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변동을 이해하거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회복력 개념의 유용성과 인기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관심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급속히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박삼욱, 2015; 변창욱, 2015; 홍사흠, 2015; 하수정 외, 2015; Totterdill,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의 개념을 지역경제 및 정책분야에 적용함에 있어 그동안 제기된 회복력 개념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검토할 필요가 높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회복력 개념이 생태학이나 물리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역 내 사회경제적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Brand and Jax, 2007).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적 다

표 1. 회복력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개념

| 개념 정의 | 해 석 | 주요 사용 영역 |
|---------------|--------------------------------------|-------------------------|
| 반등으로서 회복력 | 기존 상태 또는 발전경로로 되돌아 반등하는 경우 | 물리학과 생태학에서 논의되는 공학적 회복력 |
| 충격 흡수로서 회복력 | 충격에 직면해서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 생태학 및 사회생태학 |
| 긍정적 적응으로서 회복력 | 구조, 기능, 조직의 변화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경우 | 복잡계이론, 조직학, 진화경제학 |

자료 : Martin and Sunley(2015), p.4의 표를 재구성함

위니즘(social Darwinism) 또는 사회물리학에 대한 비판을 연상시키는 논쟁인데, 일견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회복력, 특히 지역회복력에 대한 논의를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무장소적인 지역 경쟁력의 추구가 갖는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지역회복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Bristow, 2010). 따라서 타 분야에서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회복력의 경우에는 기존의 시각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회복력에 대한 가장 뚜렷한 비판은 아마도 과거의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현상유지와 자립 및 균형 상태로 돌리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Hassink, 2010; Hudson, 2010; MacKinnon and Derickson, 2013). 그러나 회복력 개념 그 자체가 상당 부분 진화경제학에서 출발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고, 사회경제적 시스템도 장기적으로 진화하는 불균형 시스템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회복력은 장기적으로 진화하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에서 벗어나는 측면도 상당히 갖고 있다. 다만 회복력을 '정상적인 균형상태'로 복귀하는 것으로 가정할 여지는 현실적인 분석에서 충분히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유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제기되는 비판은 회복력의 개념이 특히 기존 경쟁력 개념에 의해 설명되는 것에 비해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다(Hanley, 1998). 그러나 이러한 비판도 사실은 시기상조이자 실제 회복력 개념이 갖는 가치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지역경쟁력은 경제시스템의 장기적인 성과와 보다 더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지역이 충격과 위기를 맞아 어떻게 영향을 받고 반응하면서 새로운 성장경로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Bristow(2010)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지배적인 지역경쟁력 개념은 장소성을 간과한 무장소적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적으로 회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측면에서 경쟁력과 회복력의 관계를 규명하고, 더 나아가 보다 장소적이고 맥락적인 지역변동과 그 정책적 시사점을 탐구하기 위해 회복력의 개념은 여전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역변동을 이해하는데 회복력 개념의 유용성은 높다고 판단되며, 이로써 중요한 과제는 바로 지역이 충격이나 위기로부터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지 과정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과정을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지역 차원에서 지역회복력의 측정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지역회복력의 결정요인을 탐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어지는 절에서 본 연구는 두 가지 이슈를 각각 논의한다.

2) 지역회복력의 측정과 사례연구

지역회복력의 측정 문제는 충격이나 위기 전후에 있어 지역변화의 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회복력의 측정문제는 매우 다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지역회복력과 관련된 지역변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우선 지역이 갖고 있는 위기 이전의 발전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발전경로는 지역 내 경제적 역동성, 경제적 개방성, 산업구조, 수출 집중성, 경쟁력/생산성, 기술수준, 정책체제, 지역 외 관계와 연계성 등 제 측면을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제 측면은 지역이 충격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충격과 위기에 따른 지역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울러 지역 내 제 측면들은 생산성/효율성, 산업구조, 수출 지향성, 기술, 노동기술/활용, 비즈니스 신념, 정책체제/우선순위, 지역 외 관계와 연계성 등 지역이 충격과 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게 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면서 충격 이후 지역이 적응하는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면서 새로운 충격 이후 지역의 발전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체 과정

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충격에 대한 지역의 실제적인 저항력과 복구력, 관련된 구조적 변동과 조직적 적응의 정도와 본질 등을 측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Martin and Sunley, 2015).

지금까지 지역회복력의 전 과정을 측정하고 이해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법이 등장하였는데, 크게 네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는 사례연구에 기초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으로서 관련된 자료 분석, 핵심 관련자 인터뷰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지역변동과 회복력을 이해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Evans and Karecha(2013)의 뮌헨 경제의 회복성은 다양한 산업기반의 결과라는 연구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로 상대적인 회복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일 또는 합성 지표를 설정하고 비교분석하는 회복력 지수 연구가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에는 Martin(2012)의 영국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하수정 외(2014)의 연구가 있다. 그 이외 충격이 나타나고 소멸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통계적 시계열 모형과 지역경제모델에 회복력을 내재시켜 충격 부재 시 지역경제의 경로를 추정하는 인과구조모형 등이 있다.

지역변동과 회복력 측정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접근방식은 모두 고유의 장단점과 연구초점을 가지고 있다. 개별 접근법 속에서도 충격과 위기에 따른 지역별 영향의 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기법 등을 활용하는 정량적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영향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사례연구 등 정성적인 분석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다만 지역회복력의 등장과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가 지역 내 생산수준과 특히 고용 수준의 변화에 주목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지역회복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지역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회복력 지수에 기초한 접근방식은 회복력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표 자체가 지역 간 회복력의 차이를 그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례연구 등 정성적인 접근방식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제한적이거나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두 사례연구를 검토하고자 한

다. 우선 하수정 외(2014)은 외부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회복력을 고려한 지역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주요 분석수단으로서 지역회복력 진단지표를 제시하였다. 163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적 자본, 물적 자본, 혁신 자본, 경제 자본, 사회문화 자본 등 5대 영역과 15개 세부영역으로 구성된 회복력 진단지표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서 지역회복력 진단지수를 만들어 지역별로 적용한 결과, 지역별 회복력의 비교분석 및 시기별 회복력 정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또한 취약성과 회복력 지수를 이용하여 지역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회복력 분야에서 연구의 불모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서 지역회복력에 기초한 지역발전정책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본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이 정량적인 지표의 개발 및 정책의 차별적 적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의 한계로 인해 지역별로 다양한 지역회복력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갖는 연구이다. 한편 이효선(2015)은 조선 산업으로 특화되어 대내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남해안 조선 산업지대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회복력의 과정과 그 결정요인을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본다. 정량적 분석에서 2008년 글로벌 위기에 따라 지역경제의 침체와 회복 경험이 지역별로 다양하며 그 차별성은 지역 내 노동의 질적 수준, 생산 역량, 조선 산업의 발전 정도 등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정성적 측면에서 지역별 담당자들 인터뷰를 한 결과, 지역별로 다양한 금융 및 인력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회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회복력의 결정요인

앞에서 소개한 많은 국내외 지역회복력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외부 충격 또는 위기에 직면해서 지역회복력의 수준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에 따라 회복력의 지역 간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Chapple and Lester, 2010; Simmie and Martin, 2010). 지금까지 존재해 온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

한 이론들에 따라 지역회복력을 설명하려는 요인들도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다. 하수정 외(2014)의 연구에서 회복력의 수준을 5대 영역과 15개 세부영역으로 측정된 것과 같이 한 지역의 회복력 수준이 특정 요인들에 의해 지배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 지역의 회복력은 로컬에서 글로벌 수준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집합적으로 그리고 차별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국가의 정책도 지역 회복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한 지역 내 제 경제주체의 경쟁력과 역량도 집합적으로 지역의 회복력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역회복력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Dawley et al. 2010). 첫 번째 범주는 지역 내 생산체제로서 산업구조와 기업 특성 그리고 노동시장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범주는 경제지원시스템으로서 금융시스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 및 국제적인 조절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범주는 전술한 두 개의 범주가 보다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지역 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강조하는데, 경제주체의 인식, 기대, 신뢰, 관습, 기업문화 등의 요인들을 포함한다.

지역회복력의 결정요인을 밝히려는 기존 논의 중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는 바로 지역경제의 다양성 또는 전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인 주장은 다양한 산업구조를 가진 장소가 산업기반이 협소한 장소보다 더 회복력이 강하다는 주장이다(Wolfe, 2013). 이러한 주장은 구조적 다양성 또는 종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생태학적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마셜-에로우-로머 대 제이콥스 논쟁¹⁾이기 때문에 그대로 회복력 논의에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최근에는 지역경제의 성공에 기여하는 산업구조의 특징으로서 ‘연관된 다양성’ 또는 ‘다양화된 전문화’라는 확대된 개념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지역회복력에도 그러한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Martin and Sunley, 2015). 결국 지역경제

측면에서 협소한 전문화보다 다양한 전문화가 지역회복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구조 측면에서 다양성과 함께 강조되는 것은 지역 내 핵심 산업 또는 기업의 역할이다. 지역경제가 하나의 산업 또는 기업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사실 외부 충격이나 위기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는 경험적으로 특정 산업으로 특화된 지역경제의 붕괴 경험을 토대로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지역 내 핵심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지식기반 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위기에 대한 저항을 통해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되찾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산업은 일반적으로 가장 혁신적이면서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으며, 가장 혁신적인 인재를 유인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창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 산업 또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앞에서 논의한 다양성의 역할에 대응하여 선도적인 성장부문의 전문화가 갖는 역할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상반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상세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 힘들지만,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전략, 노동시장의 조정, 지역 내 금융시스템 및 정부의 거버넌스 체제 등도 당연히 지역회복력 수준과 유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지역회복력 요인에 관한 논의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러한 요인들이 역사와 경로의존성의 결과라는 점이다(Martin and Sunley, 2015). 현재 지역이 갖고 있는 회복력 역량은 바로 지금까지의 경제발전 경로와 경험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역경제의 경쟁력과 미래 회복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회복력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장소맥락성을 담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지배적인 지역경쟁력 담론은 글로벌 환경 하에서 장소 간 경쟁을 강조하기 때문에 장소의 경쟁력을 해당 장소의 매력 또는 시장성과 일치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적 기업과 인재의 유치를 도모하고, 여타 성공 지역을 모방하면서 상대적인 경쟁적 우위를 점하려는 다소 장소 무차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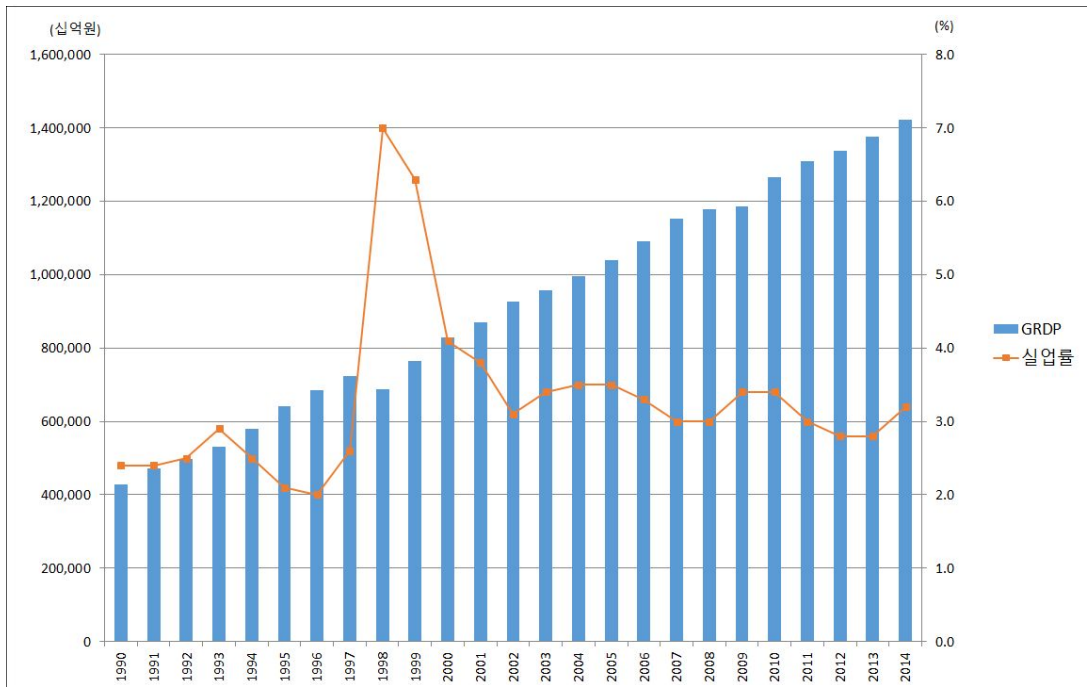
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제 저 성장과 위기 상존의 시대에는 많은 한계를 가진다고 보며, 보다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장소맥락성을 담보하는 지역회복력 제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회복력의 개념, 측정 및 요인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저 성장과 위기 상존의 시기에 지역경제의 변동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유용성이 확인된 지역회복력 관련 연구의 시작은 바로 하나의 지역이 특정 경제적 충격과 위기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그 이후 대응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 장소맥락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지역 내 생산 또는 고용의 변화를 토대로 위기 전후의 지역경제 변동을 추적하고 회복력의 정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서 지표 설정 및 지역 유형구분을 통해 지역들의 회복력 실태를 파악한다. 더 나아가 지역 내 생산 체제, 경제지원시스템 및 경제주체 측면의 다양한 요인을 통해 개별지역의 회복력 수준 또는 지역 간 회복력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시론적 수준에서 우리나라

를 대표하는 거대 도시-지역인 수도권과 동남권을 대상으로 1990년 이후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지역경제 변동경험을 지역회복력 차원에서 사례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지역회복력 연구는 지역의 장소적 맥락 속에서 타당한 회복력 측정변수를 도출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면서 지역 내 회복력 요인에 대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분석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시간적 및 자원적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는 시론적 수준에서 지역회복력 연구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제시하는 기초 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3. 수도권과 동남권의 지역회복력 사례연구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룬 우리나라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 기조를 이루었지만, 1997년 말에 도래한 외환위기는 생산과 고용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마이너스 성장과 각종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GDP는 1997년 727.7조원에서 688.3조원으로 약 5.3% 감소하였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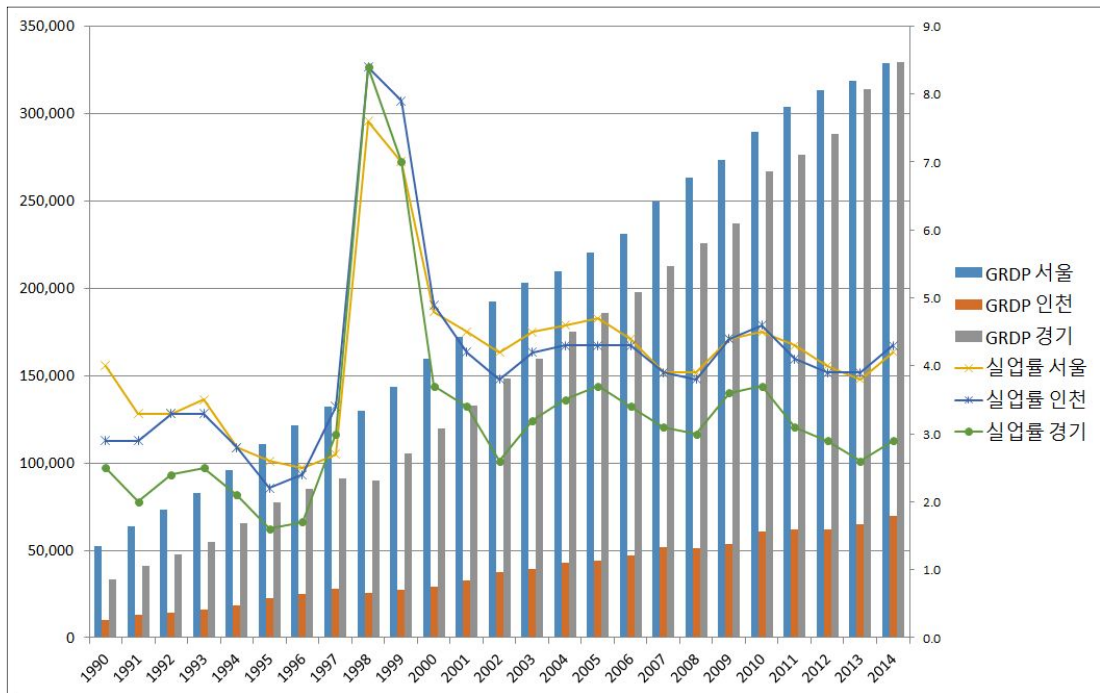
그림 1. 1990년 이후 전국 GDP와 실업률의 변화

는데, 이는 유례가 없는 결과였다. 그에 따라 전국 실업률도 동 기간 동안에 2.6%의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서 7.0%로 급등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전국 실업률이 낮아진 적은 없다(그림 1). 이후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또 한 번 경제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는 1997년 외환위기에 비해 실물경제와 실업률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높지 않았다. 실제로 GDP는 이전 위기처럼 줄어든 것이 아니라 2008년 1,179.4조원에서 1,187.3조원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3.0%에서 3.4%로 증가한 정도였다. 또한 실업률을 기준으로 전국적인 수준에서 위기에서 회복된 시기를 보면, 1998년 7.0%의 실업률이 이후에 점차 낮아져 2003년 다시 반동하기 이전 2002년까지 제1차 경제위기에 따른 회복기로 설정할 수 있는 반면, 2009년 이후 2013년까지를 제2차 경제위기에 따른 회복기로 파악할 수 있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경제충격은 사례지역인 수도권과 동남권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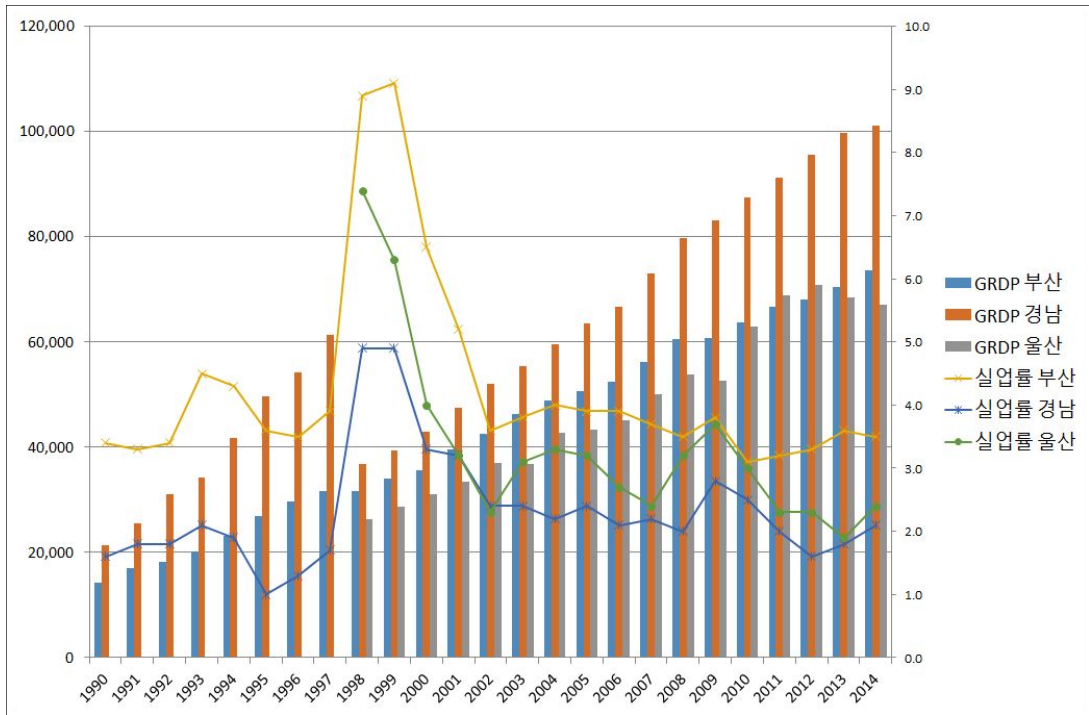
쳤지만, 그 패턴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와 그림 3). 먼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권의 변화를 보면, GRDP는 1997년 250.9조원에서 245.4조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실업률도 평균 3.0%에서 8.1%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회복기에 접어든 수도권은 2002년에 이르러 GRDP는 377.6조원으로 성장하였고, 평균 실업률도 3.5%로 낮아졌다. 1998년~2002년 기간 동안에 서울의 GRDP는 매년 10.3%의 성장률을 보였고, 인천과 경기도 각각 9.8%, 13.3%의 성장률을 보여 생산 측면에서 빠른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업률의 변화를 보면 서울의 경우 1998년 7.6%에서 2002년 4.2%로 낮아진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8.4%에서 3.8%, 8.4%에서 2.6%로 낮아져 서울과 인천에 비해 경기도의 회복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남권의 변화를 보면, 수도권과 전혀 다르게 GRDP가 1997년 92.9조원에서 1998년 94.7조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권의 지역경제가 우리나라 전체 및 수도권과 달리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그림 2. 수도권 지역의 회복력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그림 3. 동남권의 지역회복력 추이

위기에 대한 상당한 저항력(resistance)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동남권의 강점을 나타내며, 기존 연구에서 회복력의 결정요인으로 간주되는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제조업부문의 전문화된 산업구조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기업의 존재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생산 측면에서 나타나는 동남권의 저항력과 달리 외환위기의 충격은 노동시장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는데, 지역 내 평균 실업률은 1997년 2.8%에서 1998년 7.1%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회복기에 접어든 동남권은 2002년에 이르러 GRDP는 131.5조원으로 성장하였고, 평균 실업률도 2.8%로 낮아졌다. 1998년~2002년 기간 동안에 부산의 GRDP는 매년 7.7%의 성장률을 보였고, 경남과 울산도 각각 연평균 9.0%, 8.8%의 성장률을 보여 생산 측면에서 빠른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업률의 변화를 보면 부산의 경우 1998년 8.9%에서 2002년 3.6%로 낮아진 반면, 경남과 울산은

각각 4.9%에서 2.4%, 7.4%에서 2.3%로 낮아져 부산과 경남에 비해 울산의 회복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충격은 1997년 외환위기에 비해 매우 미약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데, 이는 수도권과 동남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2009년 수도권과 동남권의 GRDP는 각각 4.5%와 1.2%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평균 실업률은 수도권과 동남권에서 각각 3.6%에서 4.1%, 2.9%에서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복기에 해당하는 2009년~2013년 동안에 수도권과 동남권의 GRDP는 각각 연평균 5.3%와 5.1% 증가하면서 지역경제가 회복하였고, 평균 실업률도 2013년에 각각 3.4%와 2.4%로 낮아졌다. 따라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수도권과 동남권 모두 생산 측면에서 저항력을 보인 것으로 생각되며, 실업률 측면에서는 충격 이후 4년에 걸쳐 회복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1990년 이후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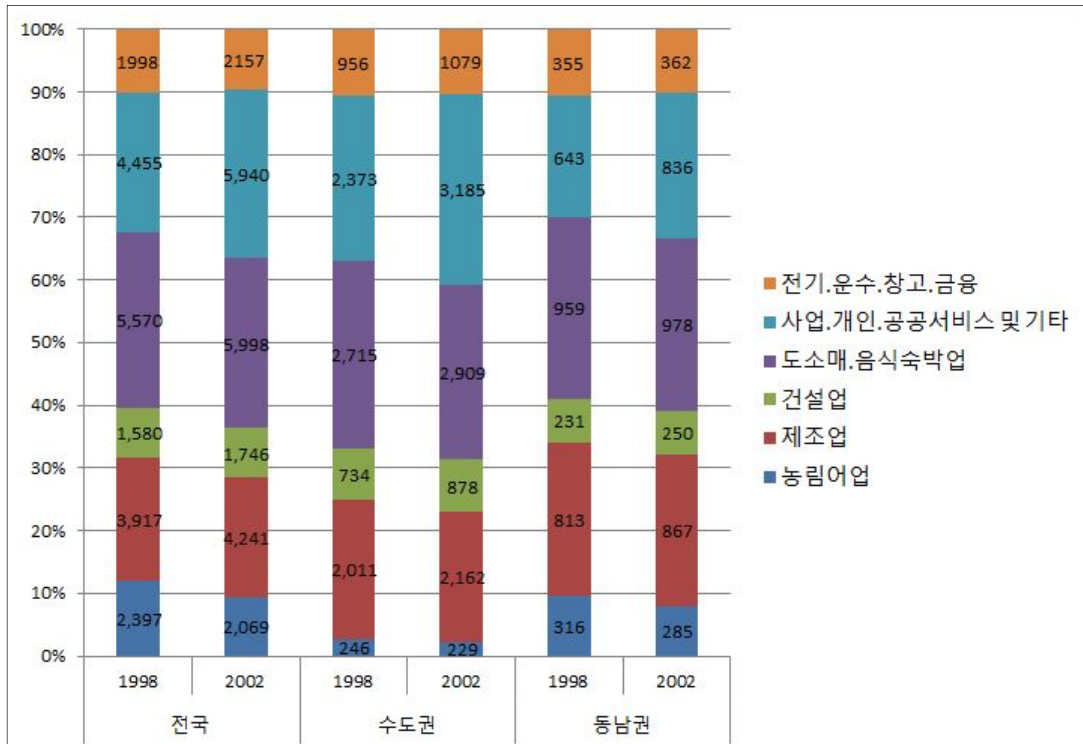


그림 4.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화

대응하여 수도권과 동남권에서 나타나는 지역회복력 추이와 두 지역 간 차별성을 고찰하였다. 이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1997년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1998년~2002년의 지역회복력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시기에 수도권과 동남권이 차별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역 내 노동시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고찰하고, 그러한 변화에 작용하는 지역 내 산업구조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전통적인 지역경제 분석기법인 변이할당분석을 채택하는데, 이 분석에서 도출되는 지역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가 고용변화에 대한 산업구조의 누적적 기여와 지역 내 산업의 경쟁력 효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2002년 회복기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약 2,234천 명의 취업자가 증대하였고, 수도권과 동남권도 각각 1,407천 명과 262천 명의 취업자 수 증가를 경험하였다. 특히 농업부문에서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는 반면, 동 시기 취업자의 증가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에 의해 절대적

로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산업별 취업구조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었다(그림 4). 전체 대비 산업별 비중의 변화를 보아도,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만 유일하게 비중이 4.4% 증가한 반면, 여타 모든 산업 부문의 비중은 모두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도권과 동남권에서 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를 보면, 1998년~2002년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 농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여타 부문에서의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하였다(그림 5).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취업자 수는 812천 명 증가하여 여타 부문을 모두 합친 612천 명보다 월등히 많은 수의 증가를 보인다. 동남권도 마찬가지로 농업부문의 감소와 함께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의 탁월한 증가가 나타나는데, 이 부문의 취업자 증가분 193천 명은 여타 부문의 증가분 모두를 합친 99천 명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이러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 중심의 지역 내 취업구조 개편은 산업별 비중 변화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그림 6). 산업별 비중의 변화에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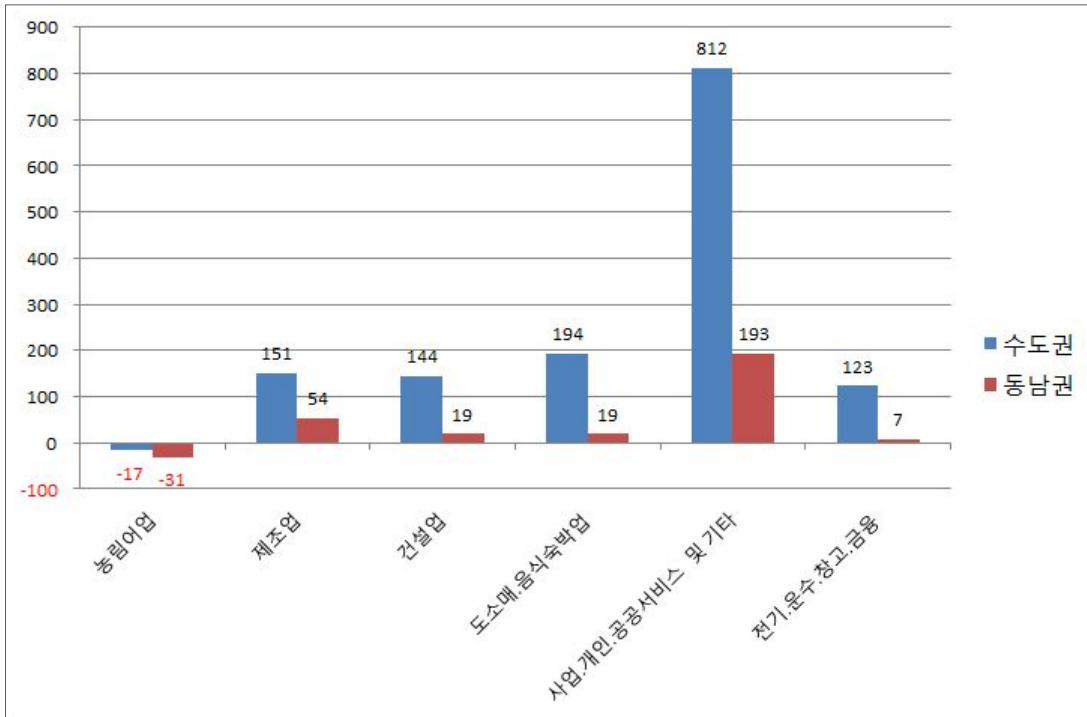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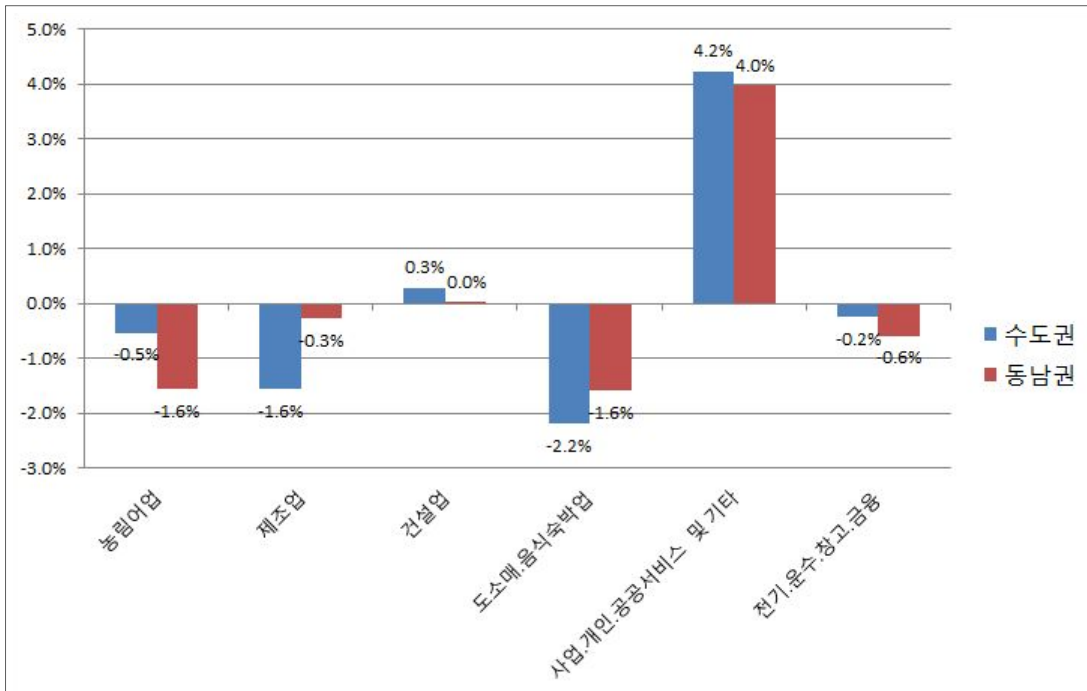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

도권과 동남권 두 지역 모두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이 4% 이상의 비중 확대를 경험한 반면, 거의 대부분의 산업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동은 지역회복력 추이에서 확인된 생산의 증대와 실업률 하락 등과 같은 지역의 반등과는 상반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 내 취업자 증가에서 정리해고자 또는 은퇴자의 비정규직 및 자영업 진출 확대가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 측면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실업률의 하락 등으로 나타난 지역경제 내 회복력의 추이가 과연 회복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

1997년 말 위환 위기 이후 회복기인 1998년~2002년 동안 수도권과 동남권의 취업자 증가분 1,407천 명과 261천 명의 요인별 기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국가경제성장효과가 1,013천 명으로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전국적인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의 탁월한 성장에 따라서 지역산업구조효과도 272천 명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농림어업, 건설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전기·운수·창고·금융업 등의 지역경쟁력에 힘입어 지역할당효과도 122천 명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수도권에서 고용부문에 있어 지역회복력 추이는 전국적인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지배적인 영향력과 함께 경기회복에 따른 건설업의 회복과 상대적으로 견고한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이라는 산업구조 효과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동남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달리 국가경제성장효과가 425천 명으로서 지배적으로 나타날 뿐 지역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는 오히려 부(負)의 값을 가져서 고용증가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도 마찬가지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의 지배적인 영향은 확인되지만,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 산업부문의 지역경쟁력 효과가 고용 증가에 기여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수도권과 동남권 내 시도별 변이할당 분석 결과를 고찰하면 보다 더 정확한 회복력 추이와 관련된 산업구조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고용증가에 기여했던 지역할당

표 2. 변이할당분석 결과

| 구 분 | | 취업자 수(천명) | | | 요인별 종사자 증감 수(천명) | | |
|-----|------------------|--------------|---------------|--------------|------------------|------------|-------------|
| | | 1998년 | 2002년 | 고용 변화 | 국가경제 성장효과 | 지역산업 구조효과 | 지역할당 효과 |
| 수도권 | 농림어업 | 246 | 229 | -17 | 28 | -61 | 17 |
| | 제조업 | 2,011 | 2,162 | 151 | 226 | -59 | -15 |
| | 건설업 | 734 | 878 | 144 | 82 | -5 | 67 |
| | 도소매·음식숙박업 | 2,715 | 2,909 | 194 | 305 | -96 | -15 |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 2,373 | 3,185 | 812 | 266 | 525 | 21 |
| | 전기·운수·창고·금융 | 956 | 1,079 | 123 | 107 | -31 | 47 |
| | 합계 | 9,035 | 10,442 | 1,407 | 1,013 | 272 | 122 |
| 동남권 | 농림어업 | 316 | 285 | -31 | 40 | -84 | 12 |
| | 제조업 | 813 | 867 | 54 | 104 | -37 | -13 |
| | 건설업 | 231 | 250 | 19 | 30 | -5 | -5 |
| | 도소매·음식숙박업 | 959 | 978 | 19 | 123 | -49 | -55 |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 643 | 836 | 193 | 82 | 132 | -21 |
| | 전기·운수·창고·금융 | 355 | 362 | 7 | 45 | -17 | -21 |
| | 합계 | 3,317 | 3,578 | 261 | 425 | -60 | -1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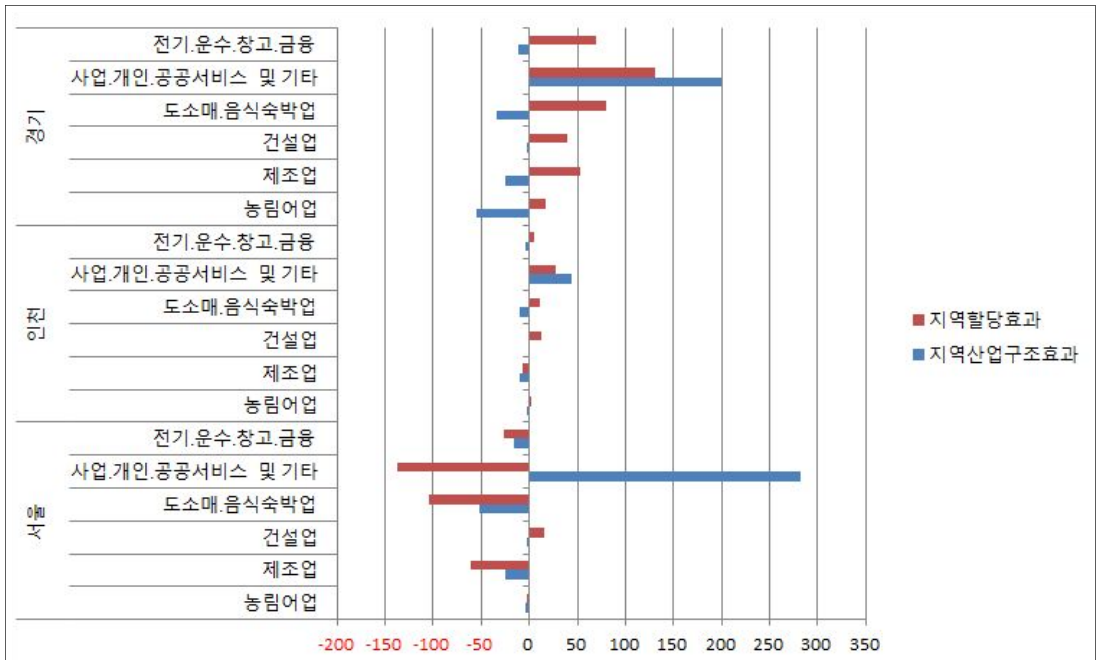


그림 7. 수도권 지역의 요인별 고용증가 효과

효과의 대부분이 인천과 특히 경기도 기여했다는 사실을 분석결과가 분명히 보여준다(그림 7). 경기도는 전 산업부문에 대해 그리고 인천은 제조업을 제외한

전 산업부문에 대해 지역할당효과가 고용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은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라 건설업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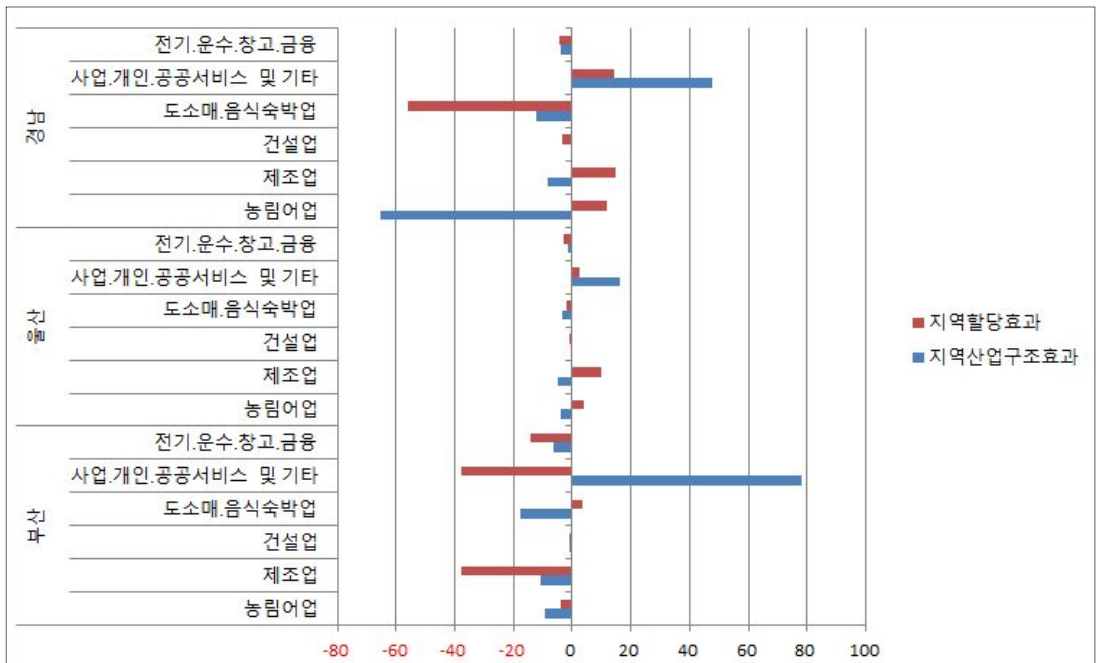


그림 8. 동남권 지역의 요인별 고용증가 효과

로 1998년~2002년 수도권 내 고용증가가 서울과 인천이 각각 363천 명과 178천 명 정도인 반면, 경기의 고용증가는 865천 명에 이른다는 사실도 경기가 기여한 역할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남권을 보면, 시도별 산업부문에 따른 지역할당효과가 상당히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8). 우선 전국적으로 탁월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의 지역산업구조효과가 3개 시·도 모두에서 고용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할당효과의 경우, 부산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만 3천 명으로 고용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울산과 경남에서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지역 내 경쟁력을 반영한 긍정적인 고용증가 기여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1998년~2002년 기간 동안 취업자 증가패턴에 있어서도, 부산의 고용증가분 119천 명에 대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이 탁월하게 기여한 반면, 울산과 경남에서는 제조업의 증가분이 전체 증가분의 38.3%와 46.3%로 각각 나타나 고용증가에 대해 제조업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지금까지 수도권과 동남권을 사례로 1990년 이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지역회복력의 추이와 그 패턴과 연관된 지역 내 산업구조의 효과를 기술통계적으로 고찰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1997년 말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와 지역경제에 생산과 고용 측면 모두에 더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으며, 특히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회복기를 거치면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이 선도하는 노동시장의 질적인 구조변동을 초래하였다. 위기 이후 노동시장 기준 4년 정도의 회복기가 나타났고, 그 동안에 수도권과 동남권은 서로 차별적인 지역회복력 패턴을 보였다. 또한 시도별 및 산업별 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징이 지역회복력의 패턴 변화와 차이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사례분석 결과가 잘 보여준다.

4.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 지역정책 전략을 지배해 온 지역경쟁력 개념이 저성장과 위기 상존 기조가 지배하는 오늘날 지역정책 전략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보다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전략을 위한 새로운 지역회복력 개념의 의미와 적용방안을 사례연구와 함께 고찰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 논문은 생태학 등 다른 부문에서 발전한 지역회복력 개념이 내재적으로 여러 한계점을 지적받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직면한 지역변동을 이해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지역회복력이 유용한 개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더 나아가 지역회복력의 측정과 요인에 대한 문헌 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회복력 관련 연구를 위한 기본방향도 설정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특정 지역 내 회복력 추이 패턴과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장소맥락적으로 특정 지역이 경제적 충격과 위기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그 이후 대응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생산과 고용 관련 다양한 지표를 설정하여 위기 전후 지역경제의 변동과 회복력 추이를 파악해야 하며,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통해 개별지역의 회복력 수준 또는 지역 간 회복력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에 따라 본 연구가 시도한 사례분석은 시론적인 분석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권과 동남권에 대한 지역회복력 추이와 그 과정에서 장소와 스케일에 따라 그 패턴과 경험이 차별적이며, 지역 내 경로의 존적으로 형성된 산업구조와 지역의 경쟁력 효과가 지역회복력 패턴을 이해하는데 유의미함을 보여 주었다.

오늘날 지역경제가 항상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지역회복력의 유용성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리학의 시각에서 지역회복력에 대한 연구가 장소맥락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는 또한 지역회복력에 대한 일반법칙의 구축 필요성과 항상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에 대한 바람직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회복력을 연구할 때 무엇에 대한 회복력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회복력인지 분명히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점은 우리에게 놓인 지역회복력을 위한 핵심 연구과제이기도 하지만, 지역회복력 연구가 진화경제지리학의 전통 속

에서 위기 전후의 경로의존적이고 누적적인 지역 경제의 변동과정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생산 측면 뿐만 아니라 고용, 복지, 소득 등의 측면에서 회복력 패턴도 적극 탐구한다는 점에서 훨씬 진보적인 속성을 갖는 접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사실 지역혁신, 클러스터, 내생적 발전 등 그동안 우리 학계와 정책분야를 지배해 온 수많은 개념들 속에 내재된 신자유주의적 속성의 폐해에 대응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전략 대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비추어 지역회복력 개념의 의의는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또한 지역회복력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에서 나타났듯이, 특정 지역 내 회복력의 패턴에 대해 지역 내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속한 보다 넓은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지역성장의 내재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기존 신자유주의적 지역발전 개념들을 극복하고, 시장과 국가의 새로운 역할정립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진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러한 지역회복력 연구의 필요성에 비추어 본 연구는 그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유의미한 지역회복력의 개념정립과 효과적인 사례연구를 위한 형식적 및 기술통계적 방법론의 정립을 위한 많은 후속연구를 기대하며 논문을 맺는다.

주

- 1)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혁신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마셜의 전문화인지 혹은 제이콥스의 다양화의 외부성인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전문화 이론은 특정 산업으로 특화된 생산구조를 가진 지역이 유사한 기업 간 지식의 흐름으로 인해 해당 산업에서 보다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다양화의 외부성 이론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지식의 흐름이 다양한 산업구조로 하여금 더욱 혁신적이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지역경제 및 정책적 맥락에서 결론을 맺지 못하는 논쟁을 고려할 때, 생물학적 접근에서 초래된 다양성 중심적 회복력 이해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문헌

김영수, 2016, 지역경제의 진단과 지역산업정책 방향 모색, 한국지역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 발

표자료집.

- 박삼욱, 2015,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회복력 제고, 국토, 400, 2-4.
- 변창욱, 2015, 지역경제 회복력의 개념과 정책방향, 국토, 400, 11-16.
- 이효선, 2015, 남해안 조선산업지대의 지역회복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수정·남기찬·민성희·전성제·박종순, 20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 하수정·남기찬·민성희·전성제·박종순, 2015,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의 진단과 활용, 국토정책 브리프, 504, 1-6.
- 현대경제연구원, 2015, 5만 달러 국가의 조건, 경제주평, 622, 1-27.
- 홍사흠, 2015, 지역경제 회복력, 국토, 400, 54-54.
- Totterdill, P., 2009, 세계적 경제위기와 유럽지역 경제의 회복력 구축, 국제노동브리프, 6월호, 4-17.
- Brand, F., and Jax, K., 2007, Focusing the meaning(s) of resilience: resilience as a descriptive concept and a boundary object, *Ecology and Society*, 12, 23.
- Bristow, G., 2010, Resilient regions: re-‘place’ing regional competitiveness,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3, 153-167.
- Chapple, K. and Lester, T. W., 2010, The resilient regional labour market? The US case,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3, 85-104.
- Christopherson, S., Michie, J. and Tyler, P., 2010, Regional resilience: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3, 3-10.
- Dawley, S., Pike, A. and Tomaney, J., 2010, Towards the resilient region?, *Local Economy*, 25(8), 650-667.
- Evans, R., and Karecha, J., 2014, Staying on top: why is Munich so resilient and successful?, *European Planning Studies*, 22, 1259-1279.
- Hanley, N., 1998, Resilience in social and economic

- systems: a concept that fails the cost-benefit test?, *Environment and Development Economics*, 2, 221-262.
- Hassink, R., 2010, Regional resilience: a promising concept to explain differences in regional economic adaptability?,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3, 45-58.
- Holling, C. S., 1973,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4, 1-23.
- Hudson, R., 2010, Resilient regions in an uncertain world: wishful thinking or a practical reality?,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3, 11-25.
- MacKinnon, D., and Derickson, K., 2013, From resilience to resourcefulness: a critique of resilience policy and activism,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7, 253-270.
- Martin, R. and Sunley, P., 2015, On the notion of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conceptualization and explanatio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5, 1-42.
- Martin, R. L., 2012,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hysteresis and recessionary shock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2, 1-32.
- Pendall, R., Foster, K. A. and Cowell, M., 2010, Resilience and regions: building understanding of the metaphor,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3, 71-84.
- Pike, A., Dawley, S. and Tomaney, J., 2010, Resilience, adaptation and adaptability,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3, 59-70.
- Simmie, J. and Martin, R., 2010, The economic resilience of regions: towards an evolutionary approach,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3, 27-43.
- Wolfe, D. A., 2013, Regional resilience, cross-sectoral knowledge platforms and the prospects for growth in Canadian city regions in Cook, P. (ed.), *Re-framing Regional Development: Evolution, Innovation and Transition*, London: Routledge, 54-72.
- 국가통계포털(kosis.kr)
- 교신 : 이원호, 136-742, 서울 성북구 보문로 34 다길 2 청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wonholee@sungshin.ac.kr, T: 02-920-7606, F: 02-920-2041
- Correspondence : Wonho Lee, 136-742, 34 Da-gil 2, Bomun-ro, Seongbu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wonholee@sungshin.ac.kr, Phone: 82-2-920-7606, Fax: 82-2-920-2041.
- (접수: 2016.08.03, 수정: 2016.08.15, 채택: 2016.08.25)